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주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23-200-465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연중 제19주일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16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시편 33, 1. 12. 18-19. 20-22)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 Blessed the people the Lord has chosen to be his own.

(Psalm 33:1, 12, 18-19, 20-22)

- Exult, you just, in the LORD; praise from the upright is fitting. Blessed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the people he has chosen for his own inheritance. ◎
- See,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ose who fear him, upon those who hope for his kindness,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preserve them in spite of famine. ◎
- Our soul waits for the LORD, who is our help and our shield. May your kindness, O LORD, be upon us who have put our hope in you. ◎

하느님 이름 (2)

날말들은 모두 이름들이다.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은 사물의 이름들을 다스리는 고도의 예술이다. 즉, 사물의 본질과 영혼의 본질이 하느님 뜻에 따라 함께 이루는 조화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다스리는 길이다.

그러나 창조된 세계와 인간 자신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는 계속되지 못했다. 인간이 죄를 짓자 그 유대가 끊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물은 그에게 낯설어질 뿐더러 적이 되었다. 사람도 더는 사물을 맑은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탐욕과 지배욕에 물들어 죄인의 불안한 눈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마저 이기적 집착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예전처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젠 아이처럼 순진하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살지를 못했다. 영혼을 어디로 놓친 듯 자신을 옳게 알 수도 다스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말 이름”이 그에게 사물과 인간본성의 산 결합의 열쇠가 되어주지를 않는다. 또 종전처럼 하느님 뜻대로 평화로 일치된 창조의 의도가 그 이름에 환히 나타나지도 않는다. 찢어진 모습이 거기 비칠 따름이다. 모두 뒤섞여 어지럽고 수수께끼 같기만 하여 낙원을 잃었음을 다시금 통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젠 그것마저도 없다. 우리들 인간은 어찌나 표피적이 되어버렸는지 다 깨어져버린 말에서 오는 아픔마저도 간직하지를 못했다. 우리는 갈수록 말을 빨리하고 갈수록 건성으로 겉으로만 하면서 속뜻은 생각지 않는다. 것처럼 이름도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쉼새없이 굴러다니게 되었다. 그 속뜻이 말을 안하게 된지는 이미 오래고 사물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은 지도 오래다. 영혼도 말 안에서 자신을 알아차린 지 오래다. 이젠 사물을 가리키기만 했지 뜻하지는 않는다. 그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이 알게만 하면 되게끔 되어버렸다.

▶ 안나회 모임

일시 : 8월 10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25-2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안내

등록기간 : 8월 3일(주일) - 17일(주일)
등록시간 : 오전 9시 30분 가족미사 후 - 오전 11시
등록장소 : 주일학교 교무실 (직접 등록만 가능)
등록요건 : 성당에 등록된 신자의 자녀
꾸준한 미사참석, 학부모 주일학교 봉사
* 개학일 : 9월 7일(주일)
문의 : 교장 송현지 레이첼 ☎ 310-658-4489

▶ 25-26학년도 한국학교 개학안내

개학일 : 8월 23일(토), 오후 2시 - 5시
등록 : 103skccks@gmail.com (이메일접수)
문의 : 교장 이정님 안나 ☎ 310-780-0832

▶ 제85차 남가주 M.E. 주말 안내

일시 : 9월 19일(금) - 9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아씨시 피정의 집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신청 :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 310-780-9055 / 310-404-1607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예비자 교리안내

대상 : 예비신자
세례식 : 2026년 4월 4일(토)
첫 교리 시작일 : 9월 4일(목), 오후 7시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문의 : 전교수녀 ☎ 213-804-9151

▶ 지붕공사 안내

사제관 지붕, 성전 지붕, 교리실 건물 지붕 공사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차장에 Trash Bin(공사용 쓰레기통)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일정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25일(월)
문의 : 사무실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제29회 정기전시회

주제 : 죽음과 죽음 너머
일시 : 8월 16일(토), 오후 12시 - 8월 28일(목), 오후 4시
장소 : Lee & Lee Gallery ☎ 213-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6,790.00
주일헌금	\$ 2,589.00
감사헌금	\$ 50.00
미사예물	\$ 2,239.00
합 계	\$ 11,668.00

고천용	구자운	권태만	김권일	김병태	김선영	김여순
김옥자	김원모	김윤진	김재동	김종렬	김진아	김태은
김혜영	박광자	박찬민	박완철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배태임	오명섭	윤선희	윤화경	이계옥	이동균	이민상
이상청	이성희	이행자	장가강	정규숙	정은아	조준제
주영애	최기진	최미열	최수지	최재은	한혁수	이상청